

SKT, 국내 최대 드론쇼에서

5G 기반 드론 영상관제 솔루션 선보인다

**- 세계 최초로 다수의 이동통신망 활용 가능한 ‘T라이브캐스터 본드’ 공개**

**- 실시간 영상관제부터 드론 원격제어까지 가능한 솔루션 ‘T라이브캐스터’ 눈길**

**- 구독형 서비스 ‘T라이브캐스터 플랜’ 인앱결제 탑재 예정… 글로벌 시장 진출 준비**

|  |
| --- |
|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

**[2022. 2. 24]**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 www.sktelecom.com)은 24일부터 2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드론 전시회 ‘2022 드론쇼 코리아’에서 5G 기반 드론 영상관제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SKT는 이번 전시에서 2022년 2월 신규 출시한 ‘T라이브캐스터 본드’를 공개한다. ‘T라이브캐스터 본드’는 최대 5개의 모뎀을 장착해 다수의 이동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는 미션컴퓨터이다\*. 드론 미션컴퓨터가 다수의 이동통신망을 동시에 사용하도록 하는 기술은 세계 최초로, 픽스호크(Pixhawk) 드론에 탑재해 관제센터와 안정적인 영상전송이 가능하다.

\* 미션컴퓨터는 비행제어장치(Flight Controller)와 연결되며, 조종기 및 관제시스템과의 통신과 드론에 탑재된 다양한 임무장치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됨

‘T라이브캐스터 본드’는 드론 배송, 환경 감시가 필요하지만 통신환경이 원활하지 않은 도서, 산간 등의 비도심지역 비행시에서도 안정적인 통신연결이 가능해 산업용 드론의 활용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T는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수신하며, 드론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 ‘T라이브캐스터’도 전시한다. ‘T라이브캐스터’는 국내 제조사와 DJI, Autel Robotics 등 글로벌 드론 업체에서 출시한 드론과 모두 연동 가능하다.

‘T라이브캐스터’는 드론 영상관제 외에도 스마트폰, IP CCTV 등 다양한 카메라를 통한 영상관제가 가능하고,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상품 구성이 가능한 구축형과 구독형 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다.

‘T라이브캐스터’는 2018년 출시 이후 70여 곳의 공공기관과 산업 현장에 도입되어 안전 관리, 원격 기술 지원, 라이브 방송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SKT는 ‘T라이브캐스터’의 구독형 모델인 ‘T라이브캐스터 플랜’에 인앱결제 기능을 연내 탑재하고 영상 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도 준비한다.

한편, 올해 6번째를 맞는 ‘2022 드론쇼 코리아’는 138개사 534부스, 1만 7,600 m2 규모의 국내 최대 드론 전시회다. SKT는 144m2 규모의 전시 공간을 마련해 드론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선보인다.

최낙훈 SKT 스마트팩토리CO 담당은 “2022 드론쇼 코리아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T 라이브캐스터 본드’는 서비스 품질이 한층 진화된 드론 관제 솔루션이다”며, “앞으로도 인텔리전스 솔루션을 통해 드론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
| --- |
| **※ 사진설명**SK텔레콤은 24일부터 2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드론 전시회 ‘2022 드론쇼 코리아’에서 5G 기반 드론 영상관제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

**▶ 관련문의 : SK텔레콤 PR실 혁신PR팀 주영호 매니저 (02-6100-3840)**

**<끝>**